

조선왕조실록의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유교정치 연구

Study on Confucian Politics about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rough Big Data Analysis

문혜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아이엘피/서울과학기술대학교

HyeJung Moon(hyejung.moon@gmail.com)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 근거를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사례에서 찾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교 관련 기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근거한 사례분석이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분야, 왕조별특징, 분야별주제, 정책변화,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제도, 조직, 재정, 애민, 예(禮) 다섯 분야이다. 왕조별특징으로 세종, 성종, 영조, 정조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맥이 계승되었다. 분야별주제는 전기는 공자 중심의 예(禮)를, 후기는 주자 중심의 제도를, 위기 시 맹자 중심의 재정이 주된 내용이다. 정책변화는 초기 건국, 전기 정비, 중기 위기, 후기 재건, 말기 몰락 시기로 구분되었다. 결정요인은 빈번히 거론된 공자보다 주자나 정자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사전을 구축하여 해석과 맥락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유교정치를 서양의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동양의 정책학 구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 중심어 : | 조선왕조실록 | 유교정치 | 빅데이터 분석 | 공공정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heories of public policy in Confucian politics during Choson Dynas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five implications. First, the area of Confucian policy of Choson consisted in authority, organization, financial policy, affection for the people, and li(ritual propriety). Second, major political context had been maintained from King Se-Jong, through King Sung-Jong and King Yeong-Jo to King Jeong-Jo in the perspective of dynasties' characteristic. Third, there were major ideas on Confucius's idea for li in early period, Zhūzǐ's idea for the authority in late period and Mencius's idea for financial policy in major risk situation. Fourth, there were five periods with establishment, foundation, crisis, restoration and collapse in the change of public policy. Fifth, Zhūzǐ' and Chéng·zi had influenced bigger than Confucius as a factors of policy making.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he complement of context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emantic analysis with implementing dictionary using two language with Korean and Chinese.

■ keyword : |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 Confucian Politics | BigData Analysis | Public Policy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 근거를 조선 왕조의 유교정치 사례에서 찾는 것이다. 현재 정부인 대한민국은 수립이 된지 100년도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국가의 형태 아래 살아온 것은 기원전 2333년 고조선 시대부터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왕조의 존속기간은 신라 993년, 고구려 705년, 조선 518년, 고려 475년 등 세계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한국의 학계는 정책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모두 서양의 학문을 근거로 교육하고 있다[1][2]. 아무리 몰락 한 왕조라 해도 세계 역사상 왕조의 평균 존속년도보다 오래 유지해온 한국의 역사에 근거해 보면 조상이 정무를 집행해온 경험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실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이미 삼국시대에 정치사상으로써 유교가 일반화된 것을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3-7]. 고구려의 소수림왕은(서기 372년) 태학(太學)을 설치해 귀족자제를 교육하였다. 백제는 오경박사제도가 있었으며 근초고왕(서기 346년 - 374년)은 아직기와 왕인을 통해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달하였다. 신라는 통일 이후 6두품 중심의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력이 증가되었다[5]. 818년 신라 말기 헌덕왕 10년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유학 진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의 사회개혁을 위해 최치원(서기 857년 - 908년 이후)이 시무10조를 작성하기도 하였다[5].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불교를 장려하고 토속신앙과 도교를 숭신하였으나, 태조심훈요의 끝 부분과 같이 유교사상에서 실제 통치이념을 구하였다[4]. 고려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건국된 조선도 정도전과 같은 유학자들의 참여로 정치적 기틀을 마련하였다[7].

역사적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교와 성리학이 중요한 이론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정책학과 행정학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유네스코(en.unesco.org) 평가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이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사료자료를 기반으로 조선의

정책결정사례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이론적인 근거를 찾고, 현대 정책학과의 연관성과 학문적인 이치가 이미 동양에 있었음을 찾아보겠다.

II. 이론적 배경

세계적으로 현대의 정치학과 정책학에서 동양적인 민주주의의 뿌리를 유교에서 찾는 학술연구를 검색하면 최근 그 수가 4.9만여 건이 넘는다(구글학술검색, 2018.05.20.). 사회 문화와 조화를 이룬 민주주의의 근거를 동양의 유교에서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9-14]. 한국에서 정치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10,619건이고, 유교와 성리학 관련 연구는 732건이다(한국학술색인, 2018.05.20.). 이중 정치와 정책을 유교와 성리학에 관련해 연구를 수행한 것은 234건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유교적 정치와 정책의 이념과, 현대정치의 리더십과 민주주의, 여성 및 종교 등 기타 정책결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에서 유교의 정치적 이념과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14-18]. 향약의 정착 등 전통한국 사회의 학문적 배경연구[19]와,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를 연구[18]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현대적 리더십과 민주주의 관련 연구는 정조의 성리학적 이념과 황로정치적 모색[20]과 정치가 세종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21]가 있다. 또한 유교적 정치가와 성숙한 민주주의 및 문화적 관점의 정치질서를 연구도 있다[22][23]. 셋째, 인사, 종교, 사회보장, 배분 등 다양한 정책결정에서 유교적 이념이 바탕이 된 사례를 연구하였다[24-27]. 유교가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28-30].

최근 조선왕조실록이나 고전문헌에 대한 메타분석이나 정보기술을 적용한 종합적인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화 되어 활용가치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31]. 이 분야는 네트워크 분석기술을 조선왕조실록에 적용하여 왕실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연구[32]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치기간 동안 왕조실록의 인명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33]가 있었다.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적용하여 조선왕조 통치스타일과 교육용어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34].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정무를 472 년간에 걸쳐 기록한 것으로써, 조선역사에서 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편찬한 것이다. 실록에 수록된 내용은 정무의 보고와 결정, 왕실의 주요행사 두 가지가 주를 이루었다. 정책학에서 보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은 정책결정, 정책도구, 정책평가이다. 조선은 정책과정과 결정이 조선왕실을 위주로 집행되었고,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단계도 없었다. 그러나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정책학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해 보겠다. 영국의 정치학자 Hood는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 도구를 NATO라 하여 IT기술 기반의 정보(Nodality), 법제도 기반의 권위(Authority), 조세·기금 기반의 재정(Treasure), 인력체제 기반의 조직(Organization) 네 가지로 보았다[35]. 정보는 네트워크,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정보 기반의 정책집행을 의미하는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도구로 보았다. 권위는 법의 제정, 제도의 정비 등 국가의 정치체제 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로 부터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재정은 조세, 공납, 사업권 등 경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조직은 군사, 공무원 등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도구로 고대로부터 전쟁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이러한 정책도구의 유형에 따라 조선에서는 유교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사례분석에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처리한다. 둘째 조선의 실록을 단순히 유교의 관점에서만 분석하지 않고 서양의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겠다. 셋째 기존의 빅데이터 기술에서 언어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한 가지 언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실록에 등장한 한글과 한자 사전을 별도로 구축하여 기초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각 문장의 해석과 맥락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III.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분석하여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인 근거를 동양의 역사와 철학에서 찾는 것이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질문 1. 유교정치의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
- 질문 2. 왕조별 유교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 질문 3. 분야별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 질문 4. 유교정치의 변화는 무엇인가?
- 질문 5. 정책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근거한 사례분석이다[36]. 일반적으로 사례분석은 사료의 유형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실록에서 유교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에서 유교 관련 기사로 국문이 9,034건, 한문이 14,047건으로 총 23,077이다. 이때 검색조건은 ‘공자’, ‘맹자’, ‘주자’, ‘정자’, ‘논어’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기사이다. 이중 경연(經筵)에 포함된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거하였다. ‘경연’, ‘조대’, ‘야대’, ‘석대’ 네 가지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면 3,895건이다. 이 자료에 포함된 단어는 2.1 백만 건으로 원고지 기준으로 4.9만 장에 해당한다. 분석대상인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웹크롤링 소프트웨어를 Java 언어로 제작하여 한자와 국문을 자동으로 수집하였다.

표 1. 분석절차와 분석내용

절차	개념	분석	빅데이터기술	분석도구
0	자료수집	형태소분석	웹크롤링	Java, Excel
1	정책분야	상관분석	동시출현성분석	KhCoder (R, MySQL)
2	왕조특징	최소신장나무	헤더분석	
3	주요주제	연관분석	테마분석	
4	정책변화	시계열분석	스트리밍분석	R(Studio)
5	결정요인	회귀분석	계층분석	

분석절차는 자료의 수집, 정책의 분야 분석, 왕조별 특징 분석, 주요 주제 분석, 정책의 변화 분석, 정책결정의 요인분석 여섯 단계로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 적용

되는 분석방법은 형태소분석, 의미망분석, 통계분석 세 가지이다. 형태소분석은 자료의 수집단계에서 수행하여 한글의 어근어미 부분을 제거하고, 한글에 해당되는 한자를 별도로 표기하여 한글·한자 병기사전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덕(德), 인(仁) 등 한음절로 구성된 한글을 한자와 병기하고 원문기사에도 포함하여 분석 결과의 오류를 낮추었다. 이 단계에서 사용한 도구는 Java와 Excel이다. 실록에서 정책결정의 주요 분야 분석 단계부터 정책의 변화 분석은 의미망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의미망분석은 대량의 비정형 자료에서 신규 이슈나 유형을 찾아내고 맥락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37]. 국내에서도 의미망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정책유형이나 이슈를 찾아낸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38]. 주요 분야, 왕조별특징, 주제별 분석, 정책변화 네 단계 분석에는 R과 MySQL을 기반으로 한 KH Coder 기술을 적용하겠다. KH Coder는 물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빅데이터 도구는 분석대상에 한 가지 언어를 적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사전을 별도로 구축하여 의미망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결정의 요인은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해 회귀분석과 계층분석을 수행한다. 통계분석과 시각화를 적용하기 위해 R Studio를 사용한다.

IV. 분석결과

1. 동시출현성 기반 주요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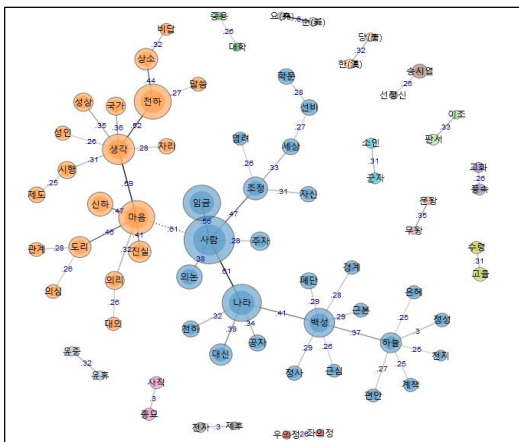


그림 1. 동시출현성 분석

유교와 관련해 실록에 수록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장은 117,507건이고, 전체 단어는 7.8만 건이고 이들 단어가 사용된 회수는 모두 5.6백만 건이다. 이 단어 들 중 200번 이상 출현한 단어 간의 연결성을 분석하면 [그림 1]과 같다. 동시출현성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구분하면 애민, 재정, 제도, 조직, 예 다섯 분야이다. 애민은 백성에 대한 근심과 여론에 대한 걱정이 주된 주제이다. 재정은 조세나 기금 등 경제적인 부분이다. 제도는 법제정과 정치체제마련에 대한 주제가 연관되었다. 조직분야는 인사, 군사 등 인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이 주된 주제이다. 예(禮)는 종묘, 제사 등 유교적 문화와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분석을 수행하여 분야별 주된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2. 헤더분석 기반 왕조특징

조선의 27대 왕조별로 유교 관련한 정책결정을 최소 신장트리로 분석하면 [그림 2]와 같다. 유교관련 정책결정을 보면 영조, 숙종, 정조, 선조, 태조, 광해 순서로 재위기간에 비례한다. 조선왕조를 재위기간 순으로 보면 영조 53년, 숙종 47년, 고종 45년, 선조 42년, 중종 40년, 순조 35년, 세종 33년 순서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재위기간이 25년이었던 정조나 16년인 광해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유교를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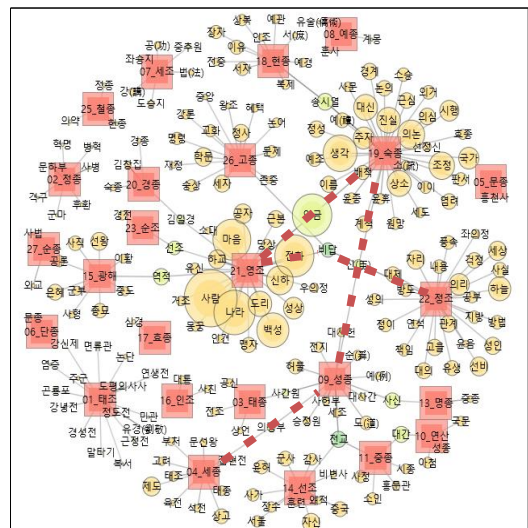


그림 2. 최소신장나무분석

유교 관련 기사건수가 낮은 왕조(재위기간)의 연평균 기사는 인종(23년) 0.48건, 철종(15년) 0.93건, 현종(16년) 1.19건, 태조(8년) 1.50건, 순종(4년) 1.75건, 정종(3년) 2.67건, 고종(45년) 4건, 예종(2년) 4건, 명종(23년) 4.22건, 태종(18년) 4.72건, 인조(27년) 4.83건, 순조(35년) 4.98건, 중종(40년) 4.98건, 단종(4년) 5건이다. 이들 왕조는 모두 왕실내란이나 왜란 등으로 인해 왕권이 약했던 시기로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교가 배척되거나 아니면 정책결정의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석은 왕조별 정책결정의 유사성이나 맥락을 볼 수 있다. 세종을 시초로 성종, 숙종, 영조, 정조에 이어 지는 맥락을 주목할 만하다. 이때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기도 했지만, 정책결정 시 유교를 참조하고 대신들의 참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연관분석 기반 주제분석

동시출현성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구분하면 애민, 재정, 제도, 조직, 예(禮) 다섯 분야이다. [그림 3]은 분야에 따라 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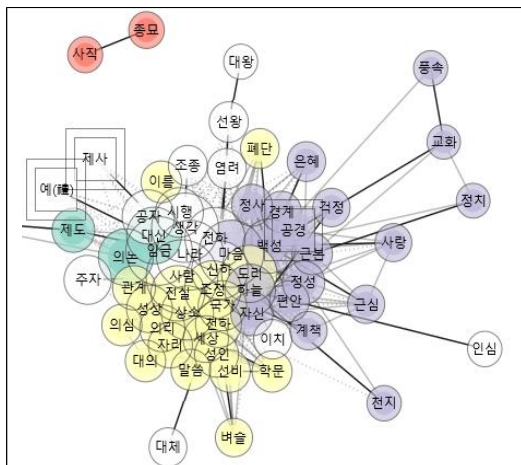


그림 3. 예(禮) 관련 정책주제

애민은 백성에 대한 근심과 여론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신뢰, 민심, 감동, 덕(德), 백성, 민중, 사랑, 하늘, 정성, 공경, 도리, 은혜, 정성, 인심 등의 단어가 주된 주제이다. 재정은 조세나 기금 등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물, 제정, 곡량전, 경제, 전세, 구제, 구휼, 금(金), 사법, 공물,

두(斗), 록(祿), 리(利), 경제, 방납, 토지, 사치, 뇌물, 대동법, 입토, 조세, 세금, 공안(貢案) 등의 단어가 주된 주제이다. 제도는 법제정과 정치제제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법(法), 명(命), 권위, 권세, 춘추호전, 경국대전, 갱장록, 감사, 건책, 대사헌, 대장경, 대전통편, 물(律), 명령, 춘추전, 시험, 제도, 대명물, 만국공법, 명(明), 명신록, 사고전서, 청금록 등의 주제가 연관되었다. 조직분야는 인사, 군사 등 인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조종, 수령, 향리, 대신, 신하, 군신, 개성부, 사헌부, 승문원, 관(官), 관사, 관원, 관찰사, 군부, 병영, 병사, 승정원, 비변사, 사간원, 사헌부, 성균관 등 조선의 조직체제등이 주된 주제이다. 예(禮)는 종묘, 제사 등 유교적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예(禮), 의례, 가례, 가묘, 공경, 기자(箕子), 내훈, 노래, 묘(廟), 묘지, 상례, 상복, 신령, 신묘악(樂), 악기, 악학례법, 예(例), 예(禮), 예기, 예문, 예서, 예속, 예악, 오례의, 예제, 제사, 천기, 천도, 천명, 천자(天資) 등이 주된 내용이다.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에서 예와 악이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정책학에서 Hood가 주장하는 정책도구의 유형 NATO과 상당부분 일치했다[35]. 네 가지 정책도구 중 정보(Nodality)는 사실상 정보화 된 현대의 국가에서 유용한 정책도구이다. 따라서 제도, 재정, 조직 세 가지 분야와 이 외 애민사상과 예(禮)가 조선의 중요한 정책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왕조별 정책변화

동시출현성분석과 헤더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분야를 왕조에 따라 분석하면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조선 초기의 정책결정에는 주로 공자가 많이 언급되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책결정에서 주자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현대의 정책도구로 구분되는 법제도, 조직, 재정 외에 전반적으로 애민과 예에 대한 실록의 내용이 많았다.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임금의 반찬수를 줄이자는 내용이 기사에서 21번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재정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적었던 반면 이와 관련한 유교의 성현은 정치에서 왕의 자질의 중요성을 논한 맹자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왕권이 약화와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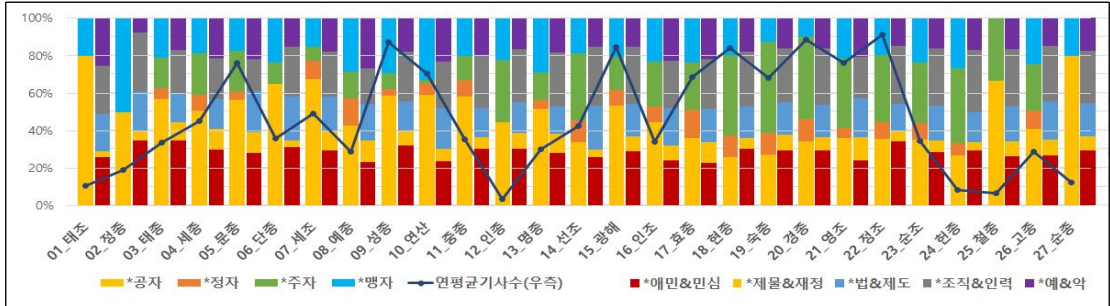


그림 4. 왕조별 정책 변화(스트리밍분석)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유교사상의 성현은 공자(孔子)가 1,767건, 주자(朱子)가 1,197건, 맹자(孟子)가 1,017건, 정자(程子)가 302건이다. 유사성검토에서 공자는 애민, 제도, 조직 정책분야를 논의할 때 각각 37.0%, 36.4%, 28.8% 언급되었다. 주자는 애민, 조직, 제도 분야를 논의할 때 각각 28.3%, 28.1%, 25.1% 언급되었다. 맹자는 애민, 조직, 재정 부문에서 21.4%, 20.5%, 18.8% 언급되었다. 정자는 법제도를 논의할 때 10.4% 언급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자와 주자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다. 주목할 점은 경제적인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맹자와 주자를 주로 언급한 점이다.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기사가 적는데 이와 같이 경제적인 정책을 논의할 때 참조한 성현은 맹자, 공자, 주자, 정자 순서로 각각 15.2%, 16.0%, 12.5% 7.7% 언급하였다.

5. 정책결정요인

실록의 기사로 계층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유교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된 정책분야는 애민과 조직이고, 다음 제도와 예(禮)에 대한 주제가 많았는데 이들 모두 실록의 기사는 공자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유일하게 제물이나 재정에 관하여 논의 시 맹자가 언급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어가 언급된 정도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이다. 전반적으로 자주 언급된 공자 보다 주자와 정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맹자가 이론적 근거로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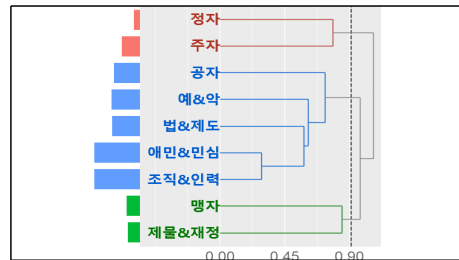


그림 5. 분석분야별 계층분석1)

표 2. 정책요인분석

Call: lm(formula = "관련기사수 ~.", data = silok.dff[2:11])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2.2370	3.254	0.687	0.5011
인물	공자	0.6345	0.325	1.952	0.0676
	정자	-2.1781	0.599	-3.637	0.0020 **
	주자	0.6937	0.236	2.939	0.0092 **
	맹자	-0.2979	0.462	-0.645	0.5276
정책도구	애민	0.3510	0.344	1.021	0.3214
	재정	0.8655	0.381	2.271	0.0364 *
	제도	-0.3263	0.449	-0.726	0.4777
	조직	0.6816	0.320	2.130	0.0481 *
예(禮)	-0.0462	0.480	-0.096	0.9245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9.639 on 17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997, Adjusted R-squared: 0.9954
 F-statistic: 627.1 on 9 and 17 DF, p-value: < 2.2e-16

1) 계층분석은 같은 단락에 해당하는 단어가 출현한 정도의 유사성이 같은 것을 군집화한다. 이때 khcoder는 콘텐츠를 주제별로 다시 묶어서 분석하는 테마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공자 관련 테마는 문선왕,孔子, 공자 등의 문자로 구성되어 여러 단어가 같은 문단에 등장한 경우에도 유사도를 계산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한다. 유사도는 자카드(Jaccard) 계수이다. 자카드 계수는 두 집합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특정 단어와 노드 단어 간의 결함을 나타낸다. 단어 w에 대해서 a가 노드 단어 전후의 w의 빈도이고 F1은 전체 데이터에서 노드 단어의 빈도, F2는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일 때 자카드 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Jaccard = \frac{a}{F1 + F2 - a}$$

V. 결 론

분석 결과 연구질문에 따라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변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주요정책분야와 정책요인에 따라 정책결정의 특징을 묶어 초기 건국, 전기 정비, 중기 위기, 후기 재건, 말기 몰락 다섯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초기 건국 시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법제도와 조직정비가 주된 정책결정이었다. 전기 세종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왕실이 강화되고 왕실의 예법이 이 시기에 주로 결정되었다. 연산부터 선조까지는 왕실 내부의 불화와 외침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내용도 적었다. 이 시기부터 정책결정에서 주자의 이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광해에서 순조에 이르기까지 잦은 외침은 있었으나 숙종, 영조, 정조에 이르기까지 왕권이 강화되고 송시열, 김장생 등 유명한 학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재정정책의 결정에서 맹자의 학문적인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종에서 순조에 이르는 조선 말기는 외척의 횡포가 심해지고 민란이 일어 결국 외침으로 인해 국가가 멸망하기에 이른다. 정책결정에 참여한 핵심 관리가 없었으며 대부분이 외척에 의해 결정되었다.

표 3. 시대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변화

	연구질문4. 정책변화				
	초기·건국	전기·정비	중기·위기	후기·재건	말기·몰락
왕조	태조~ 태종	세종~ 성종	연산~ 선조	광해~ 순조	헌종~ 순종
시작년도	1392~	1418~	1494~	1608~	1834~
연평균기사 수	3.88	8.98	5.07	9.64	2.89
연구질문1 주요분야	애민, 조직, 법제도	조직, 애민, 예(禮)	조직, 애민, 예(禮)	애민, 조직, 법제도	애민, 조직, 예(禮)
연구질문2 왕조특징	조직정비 절대군주	제도마련 체제구축	왕실위기 외침	왕권강화 사태부참여	외척강화 민란, 외침
연구질문3 주제인물	정도전	김종직, 조광조	서경덕, 조식, 이항, 이이	송시열, 류성룡, 김장생	- (외척)
연구질문5 결정요인	공자, 맹자	공자, 맹자	공자, 주자	주자, 맹자	공자, 맹자

논어에서 공자가 언급한 주제 중 실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예(禮) 972건, 도(道) 805건, 의(義) 317건, 덕

(德) 285건, 인(仁) 247건, 선(善) 194건, 문(文) 107건, 이(利) 92건, 충(忠) 40건이다. 공자는 진실된 마음[質]을 바탕으로 예[文]를 행할 수 있어야 군자라고 하였다 [39]. 정치적 사회에서 ‘군자’는 통치자(귀인)계급이고 ‘소인’은 피통치자(천인)계급을 의미한다. 공자는 군자의 기본적인 덕성으로 인(仁)을 논했다. 군자는 먼저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군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책결정에서 인(仁)이나 덕(德)보다 예(禮)와 문(文)이 두 배 이상 언급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정책결정이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517년 공자는 제나라 경공으로 부터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날에 또 정치를 묻자 공자는 “정사는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39]. 하루는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할 경우 선생님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자료가 공자에게 질문했다. “물론 정명(正名)이다”라고 공자는 대답했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00년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기술과 새로운 물건의 발명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 국가와 유사하다. 정치에서 정명(正名)이라는 것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경제적이다[40]. 인터넷 도메인주소 경쟁,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등의 세계기술표준, 특허와 저작권 등 현대 IT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듯 공자는 군자의 덕목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문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은 유교를 형식적인 면에서 정책결정에 참조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부분이 보인다. 세계사에서 대부분의 고대국가가 종교 등의 비사실적인 행위로 왕권을 강화해왔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조상에 뿌리를 두고 예(禮)와 악(樂)이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왕권강화를 추진해온 것이 조선을 오래 존속시켜 온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질문해 본다.

조선의 유교정치는 현대 정책학에서 주장하는 법제

도, 재정, 조직 부문이 공통되었다. 추가로 예·악, 애민 두 가치가 있는데 현대 시대로 보면 문화와 공공여론에 해당한다. 정책과정에서 문화를 근거로 결정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 방법에 해당한다[41]. 애민정책 부문은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조선왕조 내내 감정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실록의 기사에 수록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향후 유교 관련 실록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행위자와 정책 환경에 따라 정책결정의 차이점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대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서양의 학문에만 이론적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동양의 정책학을 연구하여 우리 문화와 역사에 적합한 학문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08.
- [2]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 [3] 김강녕, “제4장 유학사상의 전래와 변천,” *민족사상*, 제3권, 제2호, pp.125-165, 2009.
- [4] 김석근, “[훈요십조] 와 [시무 28 조]: 고려 전기(前期) 정치사상에 관한 소묘(素描),” *아세아연구*, 제42권, 제1호, pp.337-369, 1999.
- [5] 박재우, “고려의 정치제도와 권력관계,” *한국중세사연구*, 제31권, pp.195-228, 2011.
- [6] 장일규, “최치원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사회개혁안,” *한국고대사연구*, 제38권, pp.243-280, 2005.
- [7] 부남철, “준비되지 않은 혁명: 조선 건국기 유교와 정치,” *동양문화연구*, 제25권, pp.63-92, 2016.
- [8] E. M. Cline, “Justice and confucianism,” *Philosophy Compass*, Vol.9, No.3, pp.165-175, 2014.
- [9] F.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6, No.2, pp.20-33, 1995.
- [10] B. He, “Four model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37, No.1, pp.18-33, 2010.
- [11] S. P. Huntington,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Vol.2, No.2, pp.12-34, 1991.
- [12] L. H. Ling and C. Y. Shih, “Confucianism with a liberal face,” *The Review of politics*, Vol.60, No.1, pp.55-82, 1998.
- [13] S. H. Tan, “Democracy in confucianism,” *Philosophy Compass*, Vol.7, No.5, pp.293-303, 2012.
- [14] 金容郁, “朝鮮朝의 儒敎의 政治體系에 對한 研究,” *한국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pp.243-263, 1984.
- [15] 朴丙鍊, “韓國의 儒敎的 政治倫理,” *정신문화연구*, 제14권, 제4호, pp.27-41, 1991.
- [16] 양정하, “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pp.43-71, 2015.
- [17] 오종록, “유교는 고려와 조선의 통치에 어떤 역할을 하였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16권, pp.285-290, 2004.
- [18] 한석태,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pp.95-111, 2000.
- [19] 우홍준, “조선시대 향약정착의 한 원인으로서의 유교정치사상,”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103-114, 2001.
- [20] 이진경, “정조의 성리학적 이념과 황로정치적 모색,” *도교문화연구*, 제46권, pp.265-313, 2017.
- [21] 배병삼, “정치가 세종의 한 면모,” *정치사상연구*, 제11권, 제2호, pp.13-39, 2005.
- [22] 박홍규, “유교적 정치가와 성숙한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4호, pp.29-49, 2013.
- [23] 유정환, “한국문화와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제4호, pp.45-68, 1996.
- [24] 이주희, “조선초기 인사정책을 통해서 본 군신관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5권, 제2호, pp.223-244, 2006.
- [25] 부남철, “유교적 학자군주 정조의 종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2호, pp.47-65, 2003.

[26] 윤대식, "맹자의 왕정에 나타난 사회보장정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4권, 제2호, pp.215-229, 2005.

[27] 이봉춘, "조선 성종조(成宗朝)의 유교정치와 배불정책(排佛政策)," 불교학보, 제28권, pp.259-290, 1991.

[28] 김훈식, "朝鮮初期의 정치적 변화와 士林派의 등장," 한국학논집, 제45권, pp.25-54, 2011.

[29] 배병삼, "전통한국의 '정치'의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권, 제2호, pp.47-71, 2001.

[30] 이영찬,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의 유교연구 현황: 1997-2006," 한국학논집, 제37권, pp.319-340, 2008.

[31] 강문식,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현황," 조선시대사학보, 제74권, pp.215-245, 2015.

[32] 김학용, 김학봉,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529-537, 2014.

[33] 정진수, 김학용,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74-480, 2011.

[34] 한용진,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교육 관련 용어 분석," 민족문화연구, 제74권, pp.357-380, 2017.

[35] Hood, Christopher, *The Tools of Government*, Mac millan, pp.4-18, 1983.

[36]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The Method of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in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2005.

[37] V. Wouter Hendrick Atteveldt, *Semantic network analysis*, BookSurge Publishers, pp.18-23, 2008.

[38] H. J. Moon and S. K. Kim, "Study on Perceptions through Big data Analysis on Gambling related News in Korea,"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22, No.4, pp.438-447, 2017.

[39] 성백효, *논어집주*,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7.

[40] 윤무학, "중국유학사상: 중국 논리학사에 있어서

공자의 위치," 유교사상연구, 제6권, pp.73-96, 1993.

[41] M. Douglas and Aaron Wildavsky, *Risk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저 자 소 개

문 혜 정 (HyeJung Moon)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 1998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정책학박사)
 - 1995년 1월 ~ 2009년 3월 : 대상정보기술, KCC정보통신, 한솔CSN, KCC솔루션즈, 연합복권 전산업무
 - 2009년 8월 ~ 현재 : 아이엘피 대표, 복권학회협동조합 이사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데이터 분석, IT정책, 사행산업, 제자백가